

II. 經濟 指標 포커스

1. 失業率 上昇勢

- (動向) 1.8% 수준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실업률이 96년 11월 2.2%, 12월 2.3%를 기록,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
- (內容) 경기 침체에 따른 인원 감축, 신규 채용 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여성, 고졸이상 학력자, 20대의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짐
- (展望) 당분간은 고용 조정이 더욱 확대되면서 실업률은 상반기중 2.6~2.8%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

96년 말 이후 실업률 크게 상승, 11월 2.2%, 12월 2.3%에 달함

96년 12월 실업자 수는 1년전에 비해 10만 명 증가한 48만 명

- (動向) 하락세를 보이던 실업률이 96년 말 이후로 크게 상승하여 11월 2.2%, 12월 2.3%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
 - 96년 3/4분기까지는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임
 - 96년 1/4, 2/4, 3/4분기에 각각 2.2%, 1.9%, 1.8% 기록
 - 경기 하강이 고용 감소에 미치는 시차 효과와 구직을 포기한 잠재 실업자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
 - 96년 말 이후 노동 수요 둔화세가 본격화되면서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나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
 - '실제 실업자'들이 통계에서 누락되면서 96년 실업자수는 42만 명 내외로 95년과 비슷함
 - 연말부터 실업자가 크게 증가해 96년 12월에 48만 명으로 1년전에 비해 10만명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2년 4개월만에 가장 높은 2.3%를 기록함
 - 구인배율(구인/구직)이 2%대에서 최근 6개월간 연속 하락하여 96년 11월에는 1.45% 수준을 기록, 구직난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

<고용·실업 지표의 추이>

(단위 : 만 명)

	1995년				1996년						
	1/4	2/4	3/4	4/4	1/4	2/4	3/4	10	11	12	
경제활동인구	2,008	2,099	2,112	2,100	2,042	2,134	2,148	2,168	2,181	2,120	
실업자	49	41	40	39	46	41	39	40	44	48	
실업률(%)	2.4	1.9	1.9	1.8	2.2	1.9	1.8	1.8 (1.9)	2.0 (2.2)	2.3 (2.3)	

주 : ()내는 계절조정 실업률임

경기 침체에 따른
인원 감축, 신규
채용 둔화 본격화

여성, 고졸이상 학
력자, 20대 실업률
상승이 주도

고용 조정 확대로
상반기 2.6~2.8%
수준까지 상승

- (內容) 경기 침체에 따른 인원 감축, 신규 채용 둔화의 본격화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여성, 고졸이상 학력자, 20대의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짐
 - 4/4분기에 실업자수 감소, 실업률 하락의 일반적 추세와 달리 96년 4/4분기는 실업자수 증가, 실업률 상승
 - 96년 4/4분기에 실업자수가 전분기보다 3만 6천 명 늘고 실업률이 전분기 대비 0.2%p 상승함
 - 여성 실업률은 2.0%로 전년 동월보다 0.5%p나 상승함
 - 家長의 실직을 대비한 여성의 구직 활동 급증
 - 96년 12월중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48.4%(전년 동월 47%)로 취업희망자가 크게 높아진 반면,
 -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적어 실업률 크게 상승
 - 고졸이상 학력자(대졸예정자 포함)의 실업률은 3.2%(전년 동월 2.4%)에 달함
 - 반면 중졸이하의 실업률은 1%대를 유지하고 있음
 - 연령별로는 20대의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짐
 - 20~29세 실업자가 1년새에 5만 9천 명이나 증가함
 - 기존 근로자의 해고가 어려워 신규 채용의 감소를 확대함으로써 인원감축을 시도하는 국내 기업의 행태를 반영

- (展望) 고용 조정이 더욱 확대되면서 실업률은 상반기 기준 2.6~2.8%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
 -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4~5%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 고용창출 여력이 큰 폭으로 감소
 - 기업들의 재고조정-생산조정이 본격화된 이후로 고용조정세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
 - 2~3월의 채용기간동안 실업률이 크게 상승할 것임
 - 현재의 경제활동인구로 환산시 약 21,200명의 실업자가 증가하면 실업률이 0.1%p 상승하게 됨
 - 1/4분기에 실업자 53만 명, 실업률 2.56%에 달할 것으로 전망(재정경제원)

(민 주 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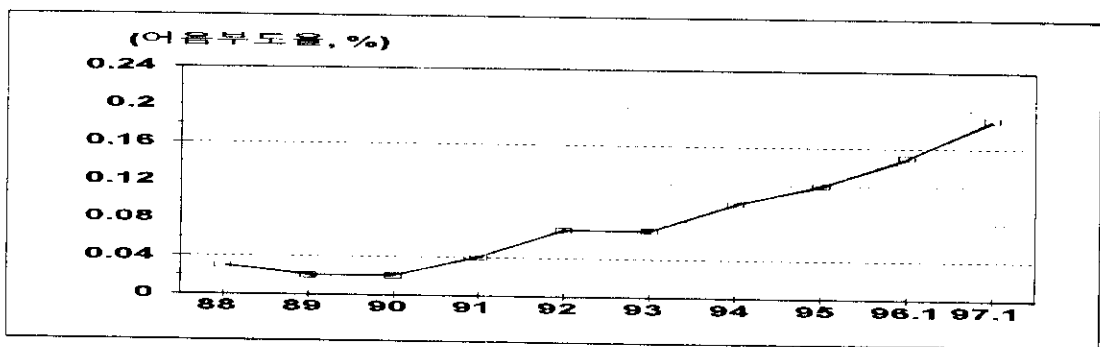
2. 어음不渡率 急上昇

- (現況) 97년 1월중 서울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.19%로 82년 5월 張玲子 사건時의 0.29% 이후 1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
- (原因)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韓寶 철강 부도로 銀行圈이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 보증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임
- (波及 效果) 어음부도율이 상승함에 따라 중소 기업의 연쇄 부도와 이로 인한 失業率의 상승, 경기 침체의 가속화가 우려됨

97년 1월중 서울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

- (現況) 97년 1월중 서울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.19%로 82년 5월의 0.29% 이후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음
 - 아울러 한보 철강 부도 전날인 1월 22일까지의 서울 지역 어음부도율은 0.11%로 96년 12월의 0.12%보다 낮았으나 1월 23일에는 0.40%, 31일에는 0.49%까지 상승하여 1월 평균 0.19%를 기록하였음
 - 이는 82년 5월 장영자 사건때의 0.29% 이후 1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
 - 1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공식 집계되지 않았으나 한보 그룹 협력 업체들이 충남 당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0.20~0.21%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

<서울 지역의 어음 부도율 추이>



- 1월중 부도로 당좌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모두 427개로 하루에 평균 17 개에 달함

한보 철강 부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

- (原因) 한보 철강 부도로 금융 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 보증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
 - 한보 철강 부도로 금융 기관들이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
 - 綜合社들이 한보 철강 융통 어음으로 큰 피해를 본 할부 금융이나 파이낸스社들의 기업 어음 인수를 기피하고 있음
 -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대기업들의 어음 결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어음 기일도 늘어나고 있음
 - 이러한 대기업들의 매출 부진으로 중소기업 하청 업체들의 일감이 감소하고 있으며 결제도 지연되고 있음

중소 기업의 연쇄 부도와 실업의 증가, 경기 침체의 가속화가 우려됨

- (波及 效果) 어음부도율이 상승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이로 인한 실업의 증가, 경기 침체의 가속화가 우려됨
 - 한보 부도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덕산 그룹이 부도난 95년 3월의 0.23%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
 -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 6조원을 방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의 자금 수요 증가로 회수가 늦어지고 있어 부도율의 증가가 예상됨
 - 향후 금융권에서는 부실 채권의 최소화를 위해 더욱 신용 대출을 기피할 것으로 보임
 - 금융권에서 자금을 얻지 못하는 기업들이 사채 시장으로 몰림에 따라 사채 금리의 상승이 예상됨
 - 어음부도율이 상승함에 따라 景氣 後行 指標인 실업률의 상승이 예상됨

(임 병 수)